아시아 각국의 대미 섬유품 수출 동향

2005년 11월에 미국과 중국이 섬유 협정에 합의하여 2006년 1월부터 2008년말까지 21개 품목을 규제하기로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섬유 수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섬유품 수입량이 2005년의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1% 증가하였다. 쿼터제가 폐지된 2005년에 무역 마찰을 겪은 12월에도 전년 동월보다도 3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렸다. 2006년 2월의 무역 속보를 보면 규제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수입량 중 1/3을 차지하는 중국과는 절대량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파키스탄이 36.4% 증가, 인도가 34.2% 증가, 인도네시아가 30.1% 증가로 쿼터제가 없어진 1월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가 모두 크게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인상적이다. WTO 미가맹국으로서 미국과의 쿼터제가 남아있는 베트남도 17.0% 증가하였다.

이들 숫자에서와 같이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다른 섬유국이 '중국에 하나 추가한 존재'로서 모두 미국으로의 수출에 자신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요인의 하나는, 미국의 유력 어패럴 등이 중국으로의 일극집중(一極集中)을 의식적으로 피해, 생산 기지를 전략적으로 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는 거점을 축소하거나 철폐하여, 베트남으로 옮기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들 섬유 수출국이 각 나라마다 자신 있는 분야를 강화하여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홈 텍스타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좋은 본보기이다. 방글라데시는 2005년부터 니트류의 증가가 눈에 띄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연료 코스트가 급등하였고 중국 제품 때문에 자기 국내 시장이 제압되고 있는데, 중국품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유력 봉제 기업은 선물(先物)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6개국) 자유 무역 지역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역 협력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타이나 인도네시아의 소재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봉제함으로써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크다. 소재부터 제품까지 일관된 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구상과는 다르지만, 관세 철폐 등 아세안 지역 내 시장을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 될 것 같다.

중국만이 주목을 받던 2005년과는 달리, 다채로운 움직임이 기대된다. ♣